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매화에서 도를 구하다

매화에 대한 소견

북방의 추운 세상에 살던 매화는 남방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그 기풍을 잊지 않고 추운 겨울 눈이 수북히 쌓여 만물이 기가 죽어 고요할 때도 얼음을 뚫고 꽃봉오리를 피워내 온 세상에 단 한 가지의 꽃만으로도 봄이 왔음을 알리면서 새로운 세상의 첫 날을 만들어낸다.



매화 서육도

화조화에서는 동백과 매화를 함께 그려 놓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 대개 그런 그림들이 뜻하는 바는 사랑과 만남이다. 부부나 연인, 또는 친구를 상징하는 두 마리 이상의 참새를 그려 놓고, 동백꽃이 만발한 가지와 백매(白梅)와 홍매(紅梅)가 만발한 가지를 겹쳐서 그린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늦게 끝까지 피어있는 꽃을 동백꽃이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을 매화라고 보는 우리의 생각이 그림을 그리는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친구로서,

세상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

청매선사의 십무익송 보며

수행자의 자세 돌아보게 돼

연인으로서, 부부로서 만나되 기왕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살지언정 가능한 일찍 만나서 죽을 때까지 오래 오래 해로하면서 살아보자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매화는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물은 번뇌로 불타오르는 이 사바세계의 화재를 끌 수 있는 최상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물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어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바다도 물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갈증이 있어서 물이 기운이 많이 필요한 사람의 방에 매화 그림을 걸어 놓으면 그 병이 많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매화그림의 기운으로 시원한 방의 분위기를 만들면 화병이 있는 보살님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매화는 유가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다. 송나라의 임포(林逋, 967~1028)라는 선비는 벼슬과 가족을 모두 버리고 절강성 항주 서호의 산 속에서 피플집을 짓고 매화를 심어 키우며, 20여년을 은거하면서 마을에 내려

가지 않았다고 한다. 혼인도 하지 않고 학과 사슴을 기르며, 술을 마시고 싶은 사슴의 목에 술병을 걸어 사러 보내고, 손님이 오면 학이 하늘로 날아 올라 기별하였다 한다.

우리 불가의 큰스님들도 역시 매화를 좋아했다. 대보살이신 육조 혜능선사를 알아 본 오조 홍인 선사의 법호는 비록 산이름을 따랐지만 황매(黃梅)이고,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와 더불어 승병장으로 활동하셨고 심무익송(十無益誦)으로 유명한 인오(1548~1623)스님의 법호는 청매(青梅)이다.

안양동 근처에 있는 어느 포교당에 가니 용화선원 송담스님이 기묘년(1999년)에 쓰신 단정한 글씨의 청매선사 십무익송이 있어 이를 읽어보면서 수행이 부족하고 중물이 될 들은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경을 읽으며 되돌려 마음을 비추어 보고, 성품이 공한 것을 알고 좌선에 임하며, 고행을 하더라도 바른 법을 믿고, 불법을 배우더라도 아만을 꺾고, 덕에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함부로 남의 스승이 되려하지 않고, 덕을 갖추지 못하면서 번지르하게 갖춰입는 습을 버리고,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신실하게 대화하고, 인과를 두렵게 생각하여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며, 비록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있어도 아만을 부리지 않고, 대중처소에 살면서 말성을 부리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면서 해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통도사에 가면 자장매(慈藏梅)라고 불리는 350년이 넘는 홍매(紅梅)가 있다.

자장매에 꽃을 피워야 우리나라에 봄이 온 것을 인중한다는데, 내년에는 꼭 보러가야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천상의 목소리로 티베트를 노래하다

겔상추키 한국어 첫 음반 발매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 앨범 자켓.

겔상 추키는 티베트 출신의 전통음악가이다. 현재 세계 월드뮤직 분야에서 티베트의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알리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하다. 조국의 역사적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노래와 메시지를 전하는 그녀는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적인 정신을 노래 속에 담아낸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그녀의 노래는 따뜻한 엄마의 품속 같은 친근하고 평온한 마음의 심터가 되어준다. 만일 그녀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난다면 그렇게 실컷 울어 보라. 타라 보살이 현신한 듯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되어 잠시나마 마음속의 번뇌를 씻어내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모른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라 불리는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가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발매된다. 12월 중순 발매를 앞둔 겔상추키의 음악세계에 대해 이야기 들어왔다.

달라이 라마가 제목을 지어 주었다는 이번 앨범에는 △사랑과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에게 귀의하는 만트라 '옴마니 반메훬' △티베트 불교의 개조자 아미타불

의 화신으로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를 찬양하는 만트라 '두 슈 상계(DHUE SUM SANGYE)' △잃어버린 조국 티베트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노래 '랑 율 삼파(RANG YUL SAMP'A)' 등이 실린다.

"첫 번째 앨범을 낸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집 앨범을 이번엔 한국에서 발매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 실린 곡 중 '랑 율 삼파'는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저에게 특별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내가 나의 조상이 살던 고향을 동경할지라도 나의 업보(karma)가 나

티베트 문화와 정신 담은

만트라 옴마니 반메훬 등

'Voice from Tara'에 담아

조국 현실 한국에 알리고자

를 망명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서쪽 하늘의 구름 뒤에는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지"

그녀는 2004년 나왕 케축의 내한공연에 참여한 이래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4번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월정사 산사음악회와 유나 방송에서 공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의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상방송국 '유나'의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매우 행복했습니다. 정목 스님께서 저의 노래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청중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가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된다. 그녀의 노래는 티베트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 전 세계에 조국의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사진제공=콘텐츠코리아

사람들이 저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기꺼이 티베트와 티베트의 현 상황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노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사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열풍인 한국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여기 다람살라에서 뿐만 아니라 본토인 티베트에서도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차기 국가 주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진핑을 티베트의 현 상황과 매치해 패러디한 동영상 버전 'Tibetans vs China's Xi Jinping' 또 '초

원 버전'과 '티베트 민족의상과 춤 버전' 등 다수의 동영상 버전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정도죠. 그만큼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세계 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서 제 음악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겔상추키는 네팔에서 태어나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언니이자 현재 같은 음악가인 남갈 라모와 함께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공연예술 협회'의 인제로 선발돼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항상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하며, 특히 달라이라마가 각지를 방문하거나 강연 혹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주요인사로 참석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구 경북 전통 미술품 한자리에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 회원전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 7회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가 안동문화예술의전당(11월27~12월2일, 054-840-3600)과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4일~12월9일, 053-606-6111)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파라지다, 승무복, 반담이, 신중행화, 화조도, 영산회상도, 청연화수 등 21점의 전통 공예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김동진 작가의 '구도'는 간절함이 익어 그리움으로 된 연꽃, 하늘을 향해 다가가는 그 바람을 담아 작품으로 펼쳐냈다. 전연호 작가의 영산회상도는 검은 바탕에 금니와 금박을 사용해 현대적 회화

기법을 응용 장엄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병현 작가의 '청연화수'는 청연을 든 손을 통해 극락으로 향하는 인간의 마음을 조형으로 빚어냈다.

신중행화, 영산회상도 등 전시

안동과 대구서 각각 열려

회장 박정환 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대중들이 전통문화미술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작가들은 더욱더 정진하고 작품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는 대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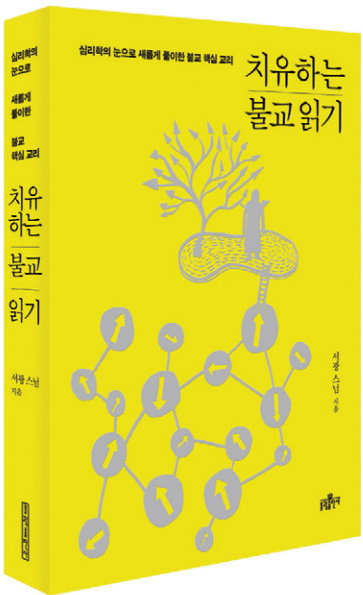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의 제 7회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가 안동문화예술의전당(11월27~12월2일)과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4일~12월9일)에서 각각 열린다. 사진은 전연호의 '영산회상도'

북지역의 불교미술진흥과 민족전통문화 각 분야의 불교미술과 전통예술에 종사하는 지역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사상제와 팔정도보다 비롯하여 삼학, 삼독, 삼법인, 바라밀, 오정심관, 삼십칠조도품, 연기, 무상, 육도윤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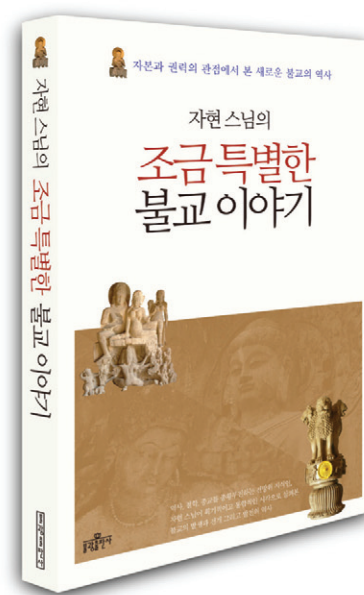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스님 지음 288면 / 14,000원

역사, 철학, 종교를 증빙무진하는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획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불교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발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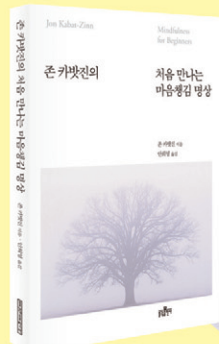
경제사와 문화사, 사상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불교 교양 인문서!

자본과 권력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불교의 역사

자현 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320면 / 15,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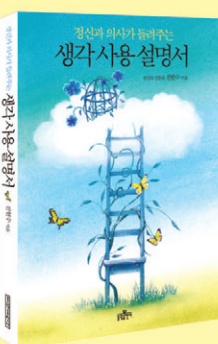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던 친구가 되자

마음챙김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더 큰 친밀감을 형성하며, 배움과 성장, 치유에 필요한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 카밧진 지음, 안희영 옮김, 240면, 15,000원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인터넷북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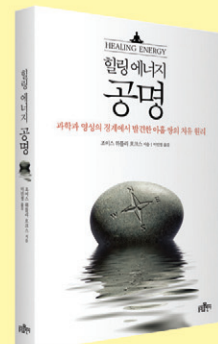
생각 사용 설명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이 들려주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처방전!

당신의 실패와 우울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때문이다. 생각이 앞서 가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늘어날 뿐이다. 생각을 버리자

전현수 지음, 256면, 15,000원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인터넷북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힐링에너지 공명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이흠 쌍의 치유 원리와 그 생명력의 비밀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조화와 공명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흠쌍의 치유 원리와 그 적용 사례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지음, 이민정 옮김, 288면, 15,000원